

# 土器의 科學的 保存處理

— 大學博物館에서 考古學徒의 處理中心 —

李 相 洙\*

## 目 次

- |           |              |
|-----------|--------------|
| 1. 머리말    | 6. 接着        |
| 2. 復原基準   | 7. 復原 및 채움   |
| 3. 準 備    | 8. 表面彩色 및 整理 |
| 4. 닦음(洗滌) | 9. 맺음말       |
| 5. 硬化處理   |              |

## 1.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은 自然科學的인 分析 및 實驗資料의 제시로 보다 분명한 근거 있는 학문적 견해를 주장하여 고고학을 위한 여타 다른 학문의 학술적 논고를 찾아 넓혀가는 추세에 있다.

先史時代 土器 분야에서도 토기의 형태와 무늬 및 제작방법에 의한 形式分類로 지역과 편년의 특성을 규정 지으려는 논리 단계에서 발전한 과학적인 성분 분석과 제작기술에 대한 연구 조사자료가 제시 되고 있다.

여기 토기의 保存處理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로서 발굴후 수 없이 파편으로 출토된 토기도 考古學徒 자신이 어느정도 숙달된 復原技術로 처리되어 發屈 報告書에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게 됨을 본다. 즉 토기 분야는 복잡한 기재와 전문적인 재료 試藥의 사용 없이도 美術材料의 기본적인 소재만 갖고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發屈者 자신인 고고학도들이 직접 웬만한 토기의 복원 처리를 원만히 함으로써 얻은 體驗的인 경험은 깊은 연구의 확신은 물론, 이 과정에서 더러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의 단서들을 찾아 볼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고고학도들을 위한 보편적인 재료의 사용에 의한 技術方法에 대하여 서술 하겠으나 성급히 말하면 處理 結果는 고고학자인 處理者 자신의 손 끝에서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國立中央博物館, 保存技術室 담당. 學藝官

## 2. 復原基準

먼저, 부서진 토기 조각은 古代에 흠으로 빚어진 工藝作品 斷片이므로 우리들 처리자는 자신의 손으로 다루어서 그시대의 공예품으로 再完成 해야 하기 때문에 全過程 작업이 끝날 때 까지는 적어도 안목있는 美術的인 솜씨를 지닌 先史人 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는, 이 작고 짧은 토기 파편 하나로 부터 모양과 곡면을 部位別로 구분하여서 찾으며, 연결 접합 함으로서 점차 완전하게 축조해서 그당시 형태로 돌아가 마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다면 흠을 반죽하는 선사인의 토기 제작기술 방법에 대한 일종의 推體驗을 느끼면서 작업하는 현재 선사인(처리자)은 토기의 고고학적 자료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자이므로 이것에 어긋나게 솜씨가 빛나가서는 안될 것이다. 즉 지나친 現代美的인 손질은 곤란하다.

끝으로 처리자는 연약한 토기편을 잘익은 연시 감을 다루듯 끝 없이 조심해야 한다. 또 복원 과정 단계마다 무너진 「와우 아파트」 같이 날림으로 대강하면 안되며 모든 작업은 정성스레 진행 하는데 특히, 세척은 단순히 웅졸한 듯 세심하게 무한한 인내심을 지니고 임하며, 접착 작업은 곡예사가 줄타기 하듯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

## 3. 準 備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자세를 갖춘다는 것은 성패의 결과를 가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격적인 保存研究所와 같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작업에 대비하는 전체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작업실 환경 빛(조명), 둘째 소도구, 세째는 소모 재료 및 접착제와 시약등 이다.

작업실 환경에 있어선, 작업대는 북쪽 창문에서 들어오는 자연광 쪽에 설치하고 통풍과 수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면 안성마춤이다.

중요한 점은 빛(조명)인데 이는 전과정의 끝날 때까지 처리 유물을 밝게 분명히 바라본다는 것으로 북창에서 오는 간접 자연조명은 난반사 빛으로 물체에 그림자를 이루지 않으므로 온당히 제 색상을 분명히 볼 수 있어 좋다. 경우에 따라선 처리후 유물(토기)들이 人爲的인 展示照明에 놓일 경우가 허다한데 이 때는 복원부분 표면의 채색 정리 작업시에 그와같은 조명 조건하에서 작업하면 될 것이다.

小道具는 기본적으로 칫과용 소도구, 수술칼, 유화 및 수채화용 붓 몇종류 또 접착제를 걸 때 쓰는 작은 유리판이나 폴리에치렌 얇은 판과 깨끗한 모래상자 그리고 각고 다듬는 칫과용 조각 전기드릴과 철제 소공구인 집게류 등일 것이나 예상과 필요에 따른 공구를 갖추면 좋다.

재료와 접착제 시약 등은 문구점과 칫과재료상과 시약상회에서 구입 하는데 칫과용 석고, 셀로테이프, 종이테이프, 탈지면, 가제, 면봉 등이고 접착제는 합성수지 종류로 P.V.A유제와 셀

루로즈인 세메다인C, 같은 것이면 되고 溶濟로는 아세톤, 알콜 등을 준비한다.

또한 처리의 전과정을 기록할 카드를 준비하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 4. 닦음 (洗滌)

작업의 첫 단계로서 이미 부서진 조각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은 시작이 끝이라는 점에서는 물론, 다음 단계인 접착과정을 위해서다.

복은 접착제나 먼지 그리고 發掘時에 묻어온 흙을 제거하면 파편들의 실제 그대로 모습이 생생히 드러나는데 이때 비로서 胎土의 燒成 분위기, 成分 그리고 古代人의 인위적인 무늬나 어떤 흔적을 찾아냄으로써 우리는 고고학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첫번째 과정이다.

유물 정리용 상자에 담겨진 토기편을 꺼내서 성급히 생각없이 세척하지 말고 우선 처리전 상태를 파악키 위하여 자세히 관찰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료의 단서가 될만한 내외 표면에 무슨 흔적은 없나 무엇이 붙어 있지는 않나, 이 토기 용도는 무엇이였으며 왜, 어떻게 부서졌나, 또 이렇게 장구한 세월 동안에도 남아왔나 하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일 것이나 가뉘게 이를 생각해 버린다면 매우 흥미있고 유익한, 긴장감을 푸는 자세 이겠다.

이런 진지한 마음을 갖고 모든 각 파편을 형태에 따른 부분별로 대체 구분하고 정확한 파편수를 헤아리고 한편 내외 특징적인, 흙 묻은 표면상태 (이 물질 부착 여부)를 관찰한다.

그러면서 처리카드에 사진과 글로 기록 한다.

실제 세척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硬質 土器는 이온交換水<sup>1)</sup>나 증류수로 씻을 수 있으나 先史土器 처럼 태토가 연약한 軟質土器는 물 사용보다 표면의 먼지나 흙을 털어낸다는 기분으로 먼저 흙덩이는 칼로 떼구고 다음은 유화붓으로 쓸어 내리어 깨끗이 한다.

연질토기도 물로 세척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적당한 방법이라고 믿는데 이것은 토기에 따라 큰 잘못 일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地表調査나 發掘로 흙과 함께 범벅이 된 토기편을 이웃 냇가나 물에서 솔로 닦아 보았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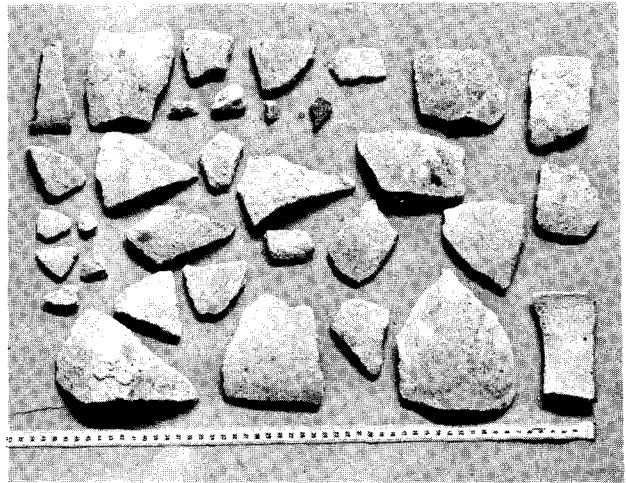


사진 1-1. 黑陶長頸壺(경주시, 조양동 토광묘 출토)  
총파편수 111점중 일부, 세척전 상태  
내외표면에, 진흙 및 나무잔뿌리 엉겨붙었음  
1980년 9월 2일 처리 시작

1) 이온(Ion)交換樹脂를 통해 걸러진 軟水로 중성이며 염기도 거의 없는 純水다.

본살 태도는 물론 표면 스립층이 벗겨져 나가며 부서진 단면의 가장자리 날이 무디어 진 것을 보게 된다.

이는 발달되지 못한 가마의 燒成에서 비교적 낮은 온도(500~700℃)에서 구어진 토기가 그나마 긴세월 땅속에서 자연적 손상을 받아서 제작 당시 보다는 硬度가 떨어져 물러졌기 때문이다. 지표에서 깊게 文化層에서 흙과 범벅이 된 것은 오히려 그 흙이 토기표면을 싸고 보호 해 주었다고 보고 그 파편을 반듯이 통풍이 부드러운 그늘에서 말린 후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문질러 털어내어 태고적의 그 표면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파편에 너무 흙이 단단히 붙어 있을 경우나, 간단한 시험<sup>2)</sup>으로 염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가제로 싸서 따뜻한 물속에 담그어 절레 절레 흔들어서 흙을 불려내고 염분도 녹여 낸다.

이런 토기의 건조는 반듯이 통풍이 적은 작업실 한구석에 놓고, 수축과 표면의 균열, 휘임 구배의 변형등에 주의 하며 몇날을 보내며 말린다.

이상과 같은 작업에서도 표면에 붙어 있는 진흙들은 그냥 두지만 파편의 쪼개진 단면은 접합을 위해서 완전히 흙가루를 제거해야 하므로 면봉에 알콜이나 증류수를 적신후 살며시 눌러 굴러가며 나머지 흙가루를 문혀 냄으로써 제거하는 방법이 되풀이 한다.

이때 물의 흡습으로 단면이 눅눅해져 부서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서 실내



사진 2 - 1. 平底櫛文土器(강원도. 양양 오산리 출토). 서울대 발굴팀에 의해 복원된 상태. 흰색은 석고 복원부분 재 보존처리 시작 1983. 10. 4 (한국미술 5,000년, 해외전시위함)

담그어 절레 절레 흔들어서 흙을 불려내고 염분도 녹여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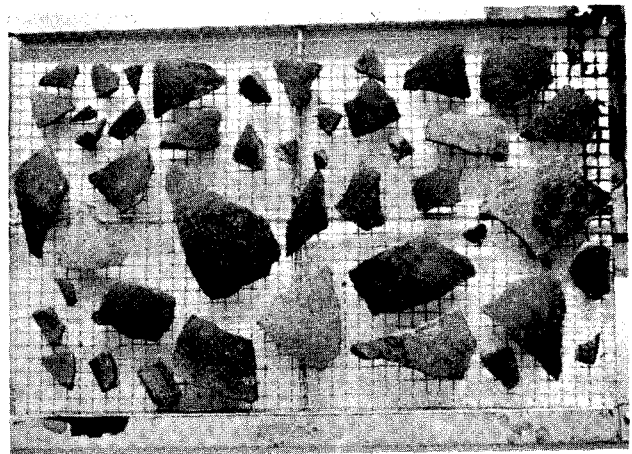


사진 1 - 2. 세척과 동시에 경화처리후 상태 30일간 걸림 합성수지 5%. 경화처리함

2) 잔류염소측정기(담배갑크기)로 좌편은 염분율, 우편은 PH측정을 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로 표준시액을 떨구면 물이, 염분은 노란색 PH측정은 청색으로 변하는 농도를 육안으로 측정하는 기, 발굴시 야외현장 측정하는 데는 적합함.

기온에서 말려가며, 시간이 걸려서라도 면봉을 이용한 제거작업을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롭게 출토된 토기들에게서 학술적 자료의 단서를 이 단계에서 발견해야 하므로 소심하게 세세한 관찰력으로 인내심을 갖고 절대로 표면 제살이 깎이지 않도록 세척해야 한다.

## 5. 硬化處理

앞의 단계에서도 언급 했지만 굳은 돌 덩어리도 자연적 현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잘게 부서져 모래가 되고 만다. 강한 세멘트 강도도 점차 약해지듯이 선사토기도 예외는 아니다.

보관창고에 있을 때 보다 처리후 展示室에 놓이면 사시사철 온습도 차이가 분명한 우리네 기후에 있어선 끊임없는 乾·濕의 반복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다. 즉 장마철 습한 때는 습기를 흡습하고 배마른 철이면 습기가 빠져나가 건조해 진다. 이것은 토기 태토 구성 재질이 조악하며 낮은 소성온도로 입자간 서로 밀착이 안된 상태로 多空性이어서 毛細管現象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태토 성분 입자간의 접력을 떨어뜨리며 수축도 생기는데 이때 약한 부분에서 서서히 미세한 금이 생기며 그 틈이 커지는 위험이 따른다. 즉 자연적 손상인 物理的變化가 생긴다.

이런 위험에서 적어도 벗어 나도록 하여, 미래의 손상 우려에 대비도 하고 그리고 다음 접착 단계에서 접착제가 태토속으로 너무 배어들지 않고 밀접하게 접합 유지 시키기 위해서 어느정도 태토 자체를 단단히 硬化處理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토기에 따라 P.V.A같은 수용성 합성수지<sup>3)</sup>/증류수 묽은용액 3~8%를 작업용액으로 해서 이 용액속에 잠시 흠뻑 담갔다 꺼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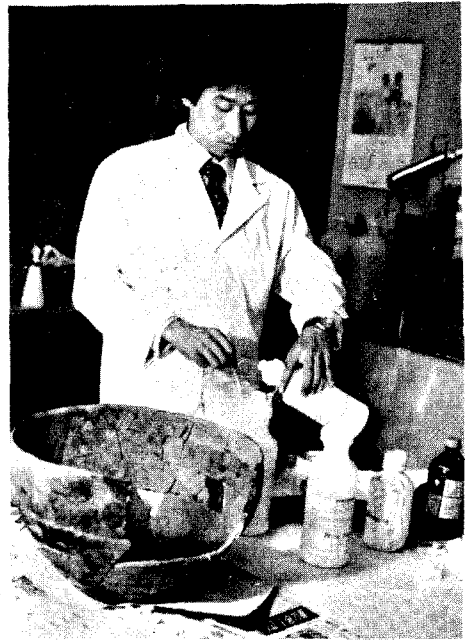


사진 2 - 2. 경화처리작업

합성수지 3% 침투. 일부 약한 접착 파편은 먼저 분리하였음

3) 물에 희석된 합성수지로 보통 40%농도임. Rohm & Hass기술제휴로 생산판매함. 품명은 Powergrip<sup>®</sup> 조림실업(주) 생산.

거나, 붓으로 충분히 발라주면 태토가 氣空性일수록 빠르게 빨아들여 용액이 태토 속으로 침투 한다. 이때 곧 표면에 흐르는 나머지 용액이 마르기 전에 가제나 솜으로 닦아내어 건조 후 토기표면에 수지 피막이 형성되어 반짝거림이 없도록 한다. 이처리는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하며 준비된 농도 용액을 먼저 작은 토기편 내부에 부분적으로 시도하여 침투 흡수력과 건조후 토기 색택의 변화 여부를 시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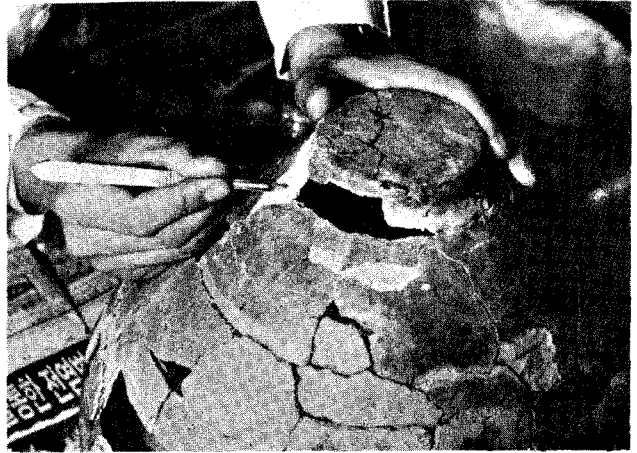


사진 2 - 3. 경화처리전  
복원된 석고 제거작업  
Mass로 조금씩 떼어 냄

알맞은 농도를 정하고 여러번의 시험에서 기술경험을 지닌 것으로 확대 간주하고, 생각있게 처리 한다면 경화처리전과 같은 표면질감 상태로 문제가 없

을 것이다. 즉 절간에서도 요령과 눈치만 있으면 새우젓을 살짝 얻어 먹듯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칫 잘못하면 낮은 농도에서도 건조 후 토기표면은 용액의 피막으로 반짝거리며 토기 색택이 두드러지게 변화하기도 한다.

처리된 토기편의 건조는 세척 후 건조방법과 같이 실온에서 서서히 말린다. 이때 급한 마음에 열을 가하거나 전기오븐기 안에서 건조시키면 안된다. 왜냐하면 갑자기 주변 공기가 더우면서 건조해지면 열 받은 토기 태토속에 침투한 용액이 그 표면으로 타고나와 피막을 형성하면서 균열 수가 있기 때문이다.

## 6. 接 着

머리말에서도 말하였듯이 접착은 곡예사가 줄을 능숙히 타듯이 해야한다. 왜냐하면, 잘못 접착했다면 Acetone같은 일반 溶解濟로 녹여가며 해체할 때 본살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자칫하면 따르기 때문이다.

가령 오지그릇을 하나 얻어서 수십편으로 쪼개 후 그 파편들을 저부에서 부터 붙여 올려서 완성해 본다. 이런 실습에서 터득하는 것은 먼저, 첫번째 접착 시작이 잘못이거나, 서로 쪼개진 단면의 이가 어그러지면 끝까지 연쇄적으로 전체가 틀려나간다. 둘째는 파편형상에 따라 접착하는 순위를 알게 되고 셋째는 원만한 작업을 위한 補助物(모래상자, 테이프, 고무줄, 조임쇠 등) 및 소도구의 필요성과 넷째는 사용한 접착제의 특성이고 다섯째는 전체 완결 접착 후에 붙임은 순간이며 잘못 접합의 결과는 영원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작업전에 각기 파편의 모양과 구배 휘임 정도에 따라 그릇의 低部腹部 上部(구연부)를 구분하고 서로 접합을 시도해 보며 맞는 파편끼리 표시하고 접착 순위를 메긴다. 그리고 없어진 缺損部가 어디인가, 없는 부분의 파편 모습을 알아 낸다. 중요한 점은 전체 그릇의 모양을 파악하고 작업을 시작해야만 하는데, 접합 시도로 머리 속에 익히거나 아니면 복원 실측도면을 작성, 또는 스캐치라도 그린다면 더 말할 나위 없다.



사진 1-3. 흑도 파편 접착  
접착된 것은 모래상자에서 굳힘

토기의 접착제로는 Polyvinyle Acetate Emul-Sion (P. V. A 乳濟)<sup>4)</sup>나 세루로즈 세메다인 C<sup>5)</sup>중에서 선택 한다. 두 접착제는 모두 빨리 굳으며 태토에 알맞게 단단해 좋다. 이들 특성은 유제의 표면에서 굳어 들어가기 때문에 파편 단면 안쪽면에 얇게 바르고 곧 두손으로 꼭 눌러서 잠시 몇분동안 밀착 접착한 후 모래상자에 살그머니 꽂아 두거나 램드에 눌러 적어도 3시간 이상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2~3편씩을 1조로 連接한 후에 다시 조립 접합하여 드디어 먼 선사시대 후, 오늘날의 고고학도 눈 앞에 다시 모양새가 이룩된 토기가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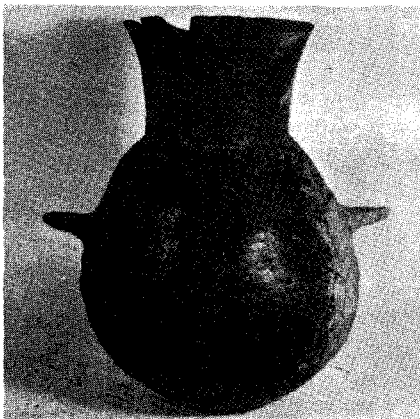


사진 1-4 흑도의 완전 접착후 상태(전·후면)

4) 명칭 그대로 우유빛 걸쭉한 농도의 접착제로 국내에선 상업용으로 생산 안 함.

5) 일본 세메다인 회사. 무색 투명한 세루로즈 수지임.

이 단계에서 비로소 학술적인 토기의 공식 이름이 부여되고 크기가 재어지며 모양새의 특징 등을 유물카드에 적을 수 있다.

끝으로 접착선 정리로, 접착제가 표면 밖으로 밀려 나온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여 깨끗이 하고, 접착 단면 길이가 짧아 물리적으로 불안한 부분은, 補強을 위해, 내부 안쪽면에 보이지 않게 가제를 테이프 처럼 오려서 사용한 접착제로 길게 붙여주면 된다.

## 7. 復原 및 채움

접합이 끝난 토기는 결국에는 모자이크처럼 단위 파편으로 구성 조립된 모양이지만 파편이 없어 못 붙인 부분은 아쉽게 이 빠진 구멍으로 남아 있으며, 더러는 전체중에 얼마큼은 아예 破失되 없어진 토기도 나오게 된다. 이 경우 처리자는 판단하여 자료 입장이나 보관 관리 입장에서 이 빠진 구멍은 채우고 없어진 부분은 반대편 남아있는 부분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고, 또는 저부(굽부분)나 상부(구연부) 전체가 없는 토기는 같은 모양의 다른 토기를 考證으로 하여 석고나 합성물질로 만들어 복원 한다.

채움은 작업이 간단할 것이며 복원은 破失部의 형상과 구배를 단계적으로 재축조하기 위해서 거꾸집을 이용하여 작업 한다. 여기 거꾸집은 粘土나 油性粘土(랜드)를 손바닥 만하게 펴서 안쪽에서도 받쳐서 작업하고, 사용 후에는 곧 재반죽하여 다시 사용 한다.

大學博物館에서 발굴후 출토된 토기를 복원할 때 석고를 사용하는데 이는 다루기 쉽고 경제적이며 어디서든지 구입 할 수 있어 좋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첫째, 석고는 굳으면서 부피가 약간 팽창하기 때문에 가능한 胎土 두께보다



사진 2 - 4. 복원 및 채움작업  
안쪽을 점토로 받치고 3겹의 서로 다른 합성물질로 메꿈

얇게 작업하고, 둘째는 물에 희석농도를 묽게하여 천천히 굳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에 접착 파편중에 접합된 길이가 짧은 곳이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미세한 금을 뚜렷한 틈새로 벌어지게 하여 뜻하지 않던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석고물이 닿는 파편 표면에 종이테이프를 붙여서 석고가 표면에 직접 옮겨 붙지 않도록 한다. 만일 석고물이 잔잔한 요철 토기표면에 붙었다면 이를 제거하기란 힘겨운 일이며 토기 본래의 색상을 흐리게 함으로 크게 조심해야 한다. 만일 옮겨 붙었다면 석고가 굳은후 조심스레 깎아내고 서두르지



말고 핀으로 태토가 다치지 않도록 일일이 빼어내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석고 복원작업은 두꺼운 석고를 자주 깎아내고 모래종이(Sandpaper)로 갈아내고 해서 석고가루가 날리고 주변이 어지럽혀 지므로 處理者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주, 소형 진공청소기로 깨끗이 청소하며 작업하는 편이 좋다.

석고작업은 숙달정도에 따라서는 손에 별로 안묻히고, 복원된 부위의 석고가 굳기 직전 상태에서 칼로 깎아내면 먼지도 안나고 복잡한 소도구 사용없이 기술적으로 간단히 처리를 끝마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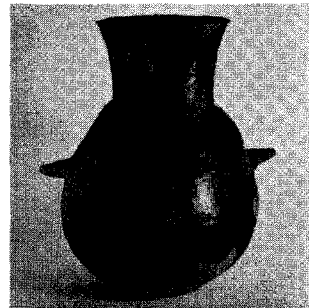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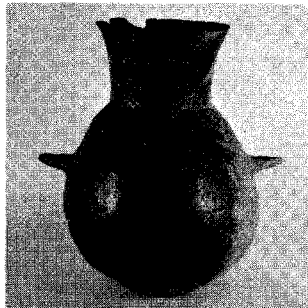


사진 1 - 5. 처리완성(1980. 12. 22)  
전면(좌)은 접착선 정리후  
뒷면(우)은 채움 후  
채색은 경주박물관 학예관 의견에 따라 구분되게  
회색으로만 채색했음

## 8. 表面彩色 및 整理

發掘遺物 일괄 전시로 석고로 복원된 토기가 자주 전시 대상에 선정되는 때는 전시를 위해 복원부분을 가능한 토기 색조와 같이 비슷하게 채색하는 것이 적합하다. 단지 자료 보관이 목적이란다면 굳이 채색을 할 필요는 없다.

채색하는 일반적 이유는 觀覽者의 입장에서 판이한 색상 때문에 視線이 복원부분에 먼저 쏠리게 하여 신경적인 피로를 더해주며, 둘째는 工藝美의인 토기의 원래 흙 질감과 달리 차갑고 경직된 異質感으로 걸 맞지 않아 古格이랄까 하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셋째는 옳바르게 관찰 내지는 감상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彩色은 주로 水性아크릴색(12색)으로 칠하는데 채색자는 먼저 원래 토기 색조를 충분히 눈여겨 보며 몇가지 색상으로 분해하여 기본 바탕색부터 칠하고 점점 그위에 특징있는 색을 입혀 가며 완성한다. 채색방법은 채색자의 개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처음에는 색상을 얇게 그리고 흐리게 시작해서 진한 색상으로 나가 본래 토기색상에 근접 하도록 찾아 간다. 칠하는 도구는,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버릇이 있겠지만  
속달에 따라, 붓이나 Spray방법. 그밖에  
탁본처럼 두들겨서 채색하는 등 유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채색하면 육안으로, 근접해서  
볼때는 채색부분을 곧 알아낼 수 있지  
만 전시실(照度(150~200Lux)에선 조  
금 떨어진 거리에서는 감지하기 좀 어  
렵도록 관람자의 착각을 유도 시키도  
록 한다. 이는 유물 자체의 실제 남아  
있는 부분, 토기 원래의 진실 및 사실  
성 때문이지 결코 속임수를 위한 것은  
아니다.



사진 2 - 5. 처리후 완성(1983. 11. 18)  
복원된 부분의 표면은 갈색(소장자 의견에 따름)

근래에는 여러나라들이 고고학적 유물 자료의 확산 보급과 교육을 위하여 模造品의 제작 전  
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색상의 문제 거론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

토기의 보존처리 마지막 단계인 채색, 정리과정에서 본래 토기 색상과 조화있는 채색으로 잘  
어울려지면 이 토기의 복원은 성공적인 것이고 부족한듯 거북살스런 색상으로 보인다면 거처온  
지난 과정들이 아무리 훌륭히 진행됐다고, 해도 전체 복원은 실패작이라는 억울한 평을 받음으  
로 가능한 잘 칠해야만 하는 채색기술 때문에 미술학도에게 의뢰하는 편이 좋을 때가 있다.

채색할때 아크릴물감이 원래 토기표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물감이 굳으면 물에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9. 맺음말

이로써 우리는 토기의 실제 복원처리를 완성한 셈이 된다. 그러나 출토된 유물은 일단 손을  
댄 후에는 좋던 싫던 처리후 상태로 남아진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즉 토기가 깨진채로 2,000여  
년 남아져서 우리세대 눈에 보여졌듯이 그렇다.

모든 재질의 遺物 保存處理 분야가 그렇지만 토기는 흙 자체의 物性 때문에 처리자에게 긴장  
감에 엄메이게 하는 여러 제한적인 요소를 던져주고 있다. 이는 경험이 많을 수록 더욱 느낄  
것이다. 그래도 다른 유물의 재질에 비해서 化學的인 變化(損傷)보다는 物理的인 變化에 대처  
만 하면 훨씬 항구적으로 안전하다고 본다.

단 한번의 처리 경험으로도 處理技術의 발전은 사용하는 시약 및 재료의 발전이라는 것도 이  
해 하겠지만 고고학도 자신에 있어선 처음 處理를 해 봄으로써 推體験的인 행동, 실험으로 고

고학 연구방면에 새로운 意義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리된 토기는 언제나 자신의 作品으로 남아지길 바랄 것이다.